

지역 대선 공약, 선거 끝나면 대부분 ‘空約’ 전략

선택 2025 대통령 선거 D-20

챗GPT, 文·尹 정부 공약 이행 분석

광주·전남 이행을 文 38%·尹 26%
‘광주 AI 모델시티 조성’ 지지부진
‘전남 재생에너지 육성’ 초기 중단
“재탕 많아... ‘책임공약’ 제시해야”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의 지난 대선 공약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흐지부지되거나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선거 과정에서 거창한 지역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상당수는 사업 명칭만 남긴 채 멈춰섰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민 사이에 “이번에도 또 빈 공약만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본보가 ChatGPT를 활용해 지난 두 정부가 제시한 광주·전남 주요 공약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인공지능(AI), 의료, 에너지, 교통 등 핵심 분야에서 상당수 사업이 개념 설계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제도적 뒷받침 부족이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hatGPT는 “광주·전남 공약 상당수는 실행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예산 계획 없이 발표됐고, 지방정부 단독 추진이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다”고 진단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광주광역시를 ‘AI 기반 미래 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광주광역시도 이에 발맞춰 ‘AI 모델시티-The BRAIN 광주’ 조성을 구상하며 △초거대 AI 컴퓨팅센터(총사업비 10조 원) △AI 반도체 클러스터(5000억원)

△글로벌 AX 실증밸리(9000억원)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사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초거대 AI컴퓨팅센터는 2년이 넘도록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 단계에 머물러 있고, AI 반도체 클러스터는 올해 정부 투자계획에조차 반영되지 못했다. 실증밸리는 전용 부지 확보와 사전타당성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개념 설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가 요구한 670억 원 규모의 AI 관련 예산은 기재부 심의에서 ‘지역사업’으로 간주돼 대폭 삭감됐고, 최근 국회 추경에서 일부(153억원)만 반영되며 가파르게 급한 불을 끄는 수준에 그쳤다.

ChatGPT는 “AI 모델시티는 발표 당시부터 예산과 제도적 기반 없이 진행돼 중앙정부의 실질적 참여 없이 지역 차원에서만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광주시가 제안한 ‘영산강유역 물순환 체계 구축 사업(2조 원)’도 실질적인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사업은 홍수·가뭄 대응과 생태 복원을 위한 대형 수자원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아직 국고사업으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마스터플랜 수립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광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물순환 체계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왔지만, 정부는 재원 확보 문제와 지역 편중 논란 등을 이유로 검토를 미루고 있다.

전남의 최대 숙원사업인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며 최근까지 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나 실질적인 진척을 이루지는 못했다.

문 정부는 2020년 공공의대 신설 논의와 함께 전남권 의대 설립 가능성을 열었지만, 관련 입법이 무산되면서 해당 사업도 표류했다. 이어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며 다시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2면에 계속 정상아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13일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역 앞 광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합성사진).

김양배 기자

‘45년만에 처음’ 5·18 당일 KIA 홈경기서 응원전

응원 자제 아닌 민주주의 대축제로
‘오월정신 확장’ 특별이벤트 제안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5·18 당일인 18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경기에서 응원전이 열린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홈경기에 오월의 의미를 담은 특별 이벤트와 응원단 운영을 KIA 구단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5·18 45주년을 계기로 5·18 기념

행사를 민주주의 축제로 확장하려는 광주광역시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으며, ‘오월 광주의 승리’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5월18일 광주에서 열린 KIA 홈경기에서는 5·18 희생자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응원단을 운영하지 않았고, 팬들 또한 자발적으로 응원을 자제해 왔으나 시는 5·18 정신을 시민 일상과 문화 속으로 녹여내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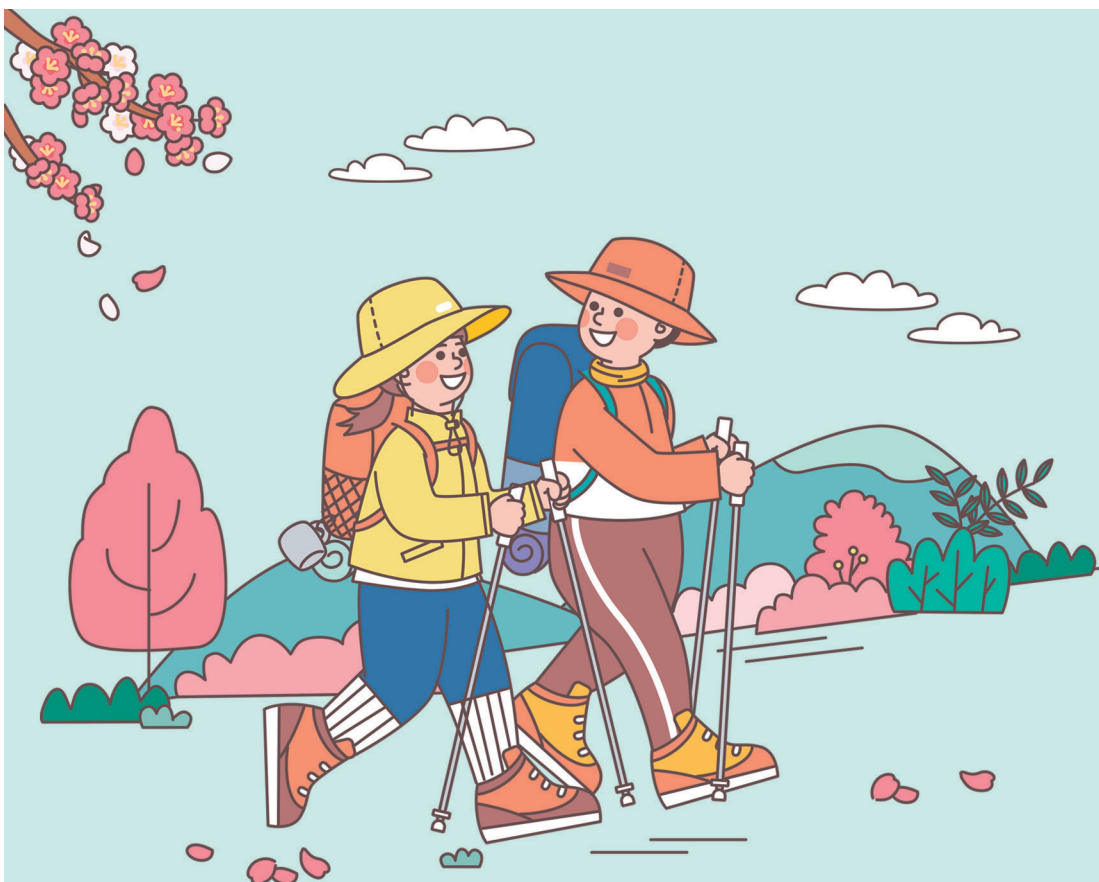
광주광역시는 제안에 앞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공법 3단체와

5·18기념재단,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 오월어머나집,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 등 오월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오월 단체들은 “시대가 변한만큼 5·18 정신의 확장을 위해 5월 18일 당일 KIA 홈경기 응원방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공감의 뜻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5·18은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역사”라며 “광주를 대표하는 야구 문화 속에서 오월정신을 시민과 함께 재해석하고 승화할 수 있도록 KIA 타이거즈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무등산을 걷자

제19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

5월 24일 오전 8시30분

전남일보가 ‘제19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를 갖습니다.

광주광역시·화순군·담양군에 걸쳐 있는 무등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산행은 문빈정사 광장을 출발해 자율 산행으로 진행되며,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정화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무등산의 추억’을 담아가실 시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 행사명 제19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
- 일시 2025년 5월24일(토) 오전 08시30분
- 장소 문빈정사 앞 광장 (집결)
- 신청기간 2025년 4월22일(화) ~ 5월19일(월)
- 인원 300명 선착순 접수
-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제공

- 참여방법 홈페이지(www.jnilbo.com) 접속,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문의 062) 519-0730~1
- 주최주관 전남일보·전일엔시스
- 후원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 화순군·담양군 전남대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